

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

(출 33:01-06)

오늘 본문에는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었을 때 어떻게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자 시내 산 구름 속으로 들어간 40일 동안이었습니다.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더듬을 보고 모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며 난장판을 벌였습니다.

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. 교회 역사 속에서도 나타납니다.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신을 만들어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으십니다.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.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? 4절, ‘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’ 회개하였습니다.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여 마침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던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달았습니다. 더더욱 놀란 것은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으실 것에 관하여 들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않으신다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낙심이 되었습니다. 그리하여 슬퍼하였습니다. 그러나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‘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’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5절, ‘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’ 고 명령하셨습니다.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였습니다. 6절, ‘이스라엘 바손이 호렘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’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? 여러분들 마음 속에 큰 능력과 확신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? 그러하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는 여러분들의 단장품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